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고려 공종이 중국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도를 실시한 이래 과거시험은 이세조선이 말할 때까지 인재 선별 방법으로 부동의 지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이세조선 중기 이후 과거제도도 많은 폐단을 야기시켰다. 이 중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시험의 답안 작성 방법에 있었다. 과거시험 답안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형식적 틀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

이 과거시험용 글을 공령문(功令文)이라고 하는데 응시자들은 이것을 익히기 위해 수십 년을 허비해야만 했다. 공령문은 실용적인 글도 아니고 학문에 도움이 되는 글도 아니다. 오로지 과거시험을 위한 글일 뿐이다. 막상 합격하고 나면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글이지만, 과거를 통하지 않고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공령문에만 매달리게 된 것이다.

이 폐단을 가장 신랄하게 지적한 분이

다산 정약용이다. 그는 '오학론(五學論)'에서 말하기를 "지금 천하의 총명하고 슬기 있는 자를 모아놓고 한결같이 모두 과거라는 절구(절구)에 던져 넣어 찧고 두드려 대서, 오직 깨어지고 문드러지지 않을까

과거시험과 수학능력시험

두려워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라고 했다. 그는 또 과거의 해독이 흉수나 맹수보다 더하다고 하면서, 만일 과거시험에 들어는 시간과 노력을 학문에 쏟는다면 그 사람은 능히 주자(朱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더 나아가 일본에는 과거제도가 없기 때문에 문화가 동쪽 오랑개 중에서 뛰어나고 무려도 중국과 대항할만 하며 나라의 규모와 기강이 잘 정돈되어 조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학능력시험을 과

거시험에 비유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해마다 5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수능"이라는 절구(절구)에 던져 넣어 찧고 두드려 대는데, 과연 수능을 위한 공부(공부)의 정도인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오래전에 현행 수능시험의 전신인 학력고사의 국어과 출제위원으로 몇 번 차출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지문의 분량이 너무 많은 것에 놀랐다. 주어진 시간에 지문을 읽기도 벅찬데 언제 문제를 풀겠느냐는 의문이 들었다.

물론 교과서에 있는 지문은 굳이 읽지

않아도 되겠지만 교과서 이외의 지문도 상당히 포함된 터라 이런 우려를 이야기했다니 동료 출제위원들의 말은 '학생들이 지문을 읽지 않고 바로 문제를 푼다'는 것이었다.

4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이었다. 이쯤 되면 학생들은 '문제 풀고 점수 따는 기계'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수능이 출제된 시(詩)에 관한 문제를 그 시를 쓴 시인 자신이 한 문제

도 맞추지 못했다는 일화가 현행 수능시험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막대한 사교육비까지 지출해야만 하는가? 물론 불합리한 과거시험을 통해서도 훌륭한 인재는 선발되기 마련이며, 수능시험을 통해서도 우수한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산의 말처럼 그런 시험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는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수준을 높이 평가했지만, 한국의 학생들이 '수능형 인간'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생각을 달리했을 것이다.

다산을 비롯한 양심적인 학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거제도는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산도 제자들에게 과거에 응시하라고 권유했다.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능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적인 차원의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땅의 젊은 학생들은 비생산적인 수능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성균관대 명예교수·전통문화연구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 야구장 건립 더이상 '공수표' 안돼야

광주 야구장 건립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17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주 야구장 건립 시민추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리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MOU까지 체결했던 건설사의 중도 포기로 돝구장 건립이 좌초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시민추진위는 시민단체와 건설·토목 전문가, 체육관련 교수, 관공,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추천한 개방 야구장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돝구장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늦어도 6월 말까지 건립계획을 결정 짓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는 일정도 확정됐다.

우리는 이번 야구장 건립 계획이 또 다시 공수표(空手票)가 돼서는 안 된다. 광주의 새 야구장 신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적 현안이자 과제일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새 구장 건립을 약속하고, 결과는 언제나 흐지부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구장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번처럼 여론 수렴 절차를 밟지 않고 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선 야구장 건립은 고사하고 지역사회 분열만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진위원들도 출신 단체나 소속에 얽매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야구장 건립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시 재정상태, 수익성 확보, 도시 균형발전과의 연계성,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어떤 형태의, 어느 규모의 야구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광주시와 추진위는 시민들은 국내 최고 명문구단인 타이거즈의 명성에 걸맞은 구장에서 야구를 즐길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어떻게, 어디에다 지을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 하되 신속히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안전 불감증이 부른 리프트카 추돌사고

광주 지산유원지에서 사흘 전 리프트카 추돌사고로 인해 노인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산 아래에서 내려오던 리프트 1기가 안전핀이 풀리면서 앞서가던 리프트를 뒤에서 들이 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뒤편 리프트에 타고 있던 차모(68)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지고, 동승자 윤모(72)씨는 치아 10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날 사고는 주말인데다 많은 사람들이 리프트카에 이용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 역시, 사업자 측의 안전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임을 부인할 수 없다. 최후를 고장하는 안전핀이 풀린 것은 매일 실시해야 할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건설교통부 '안전고시'에 리프트 시설의 연결장치에 대한 점검이 '전수'가 아닌, '임의추출 방식'으로 돼 있는 것도 사고의 요인이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3월 지

산유원지 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당시 전체 리프트 66기 가운데 일부만 임의추출 방식으로 연결장치를 분해·검사했다. 이는 연결장치 하나에 생명을 맡겨야 하는 리프트카의 속성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기점검에서 일부 점검을 생략한 것은 사고 발생을 방치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이 리프트카는 32년간이나 운행돼 온 '노후 장치물'이라는 점에서 전수 점검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산유원지 리프트카는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과 2008년 8월에는 탑승자들이 3m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탑승자 추락을 막는 여단이 유일한 데다 체구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리프트가 제작된 때문이다. 부실 관리에 따른 사업자 측의 안전불감증을 엄히 물어야 하는 이유다. 안전핀이 풀린 관계법도 서둘러 개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 탐도 세우지 말라." 법정스님의 입적과 다비식을 지켜본 중생들의 가슴에 가장 크게 울린 말씀 아마도 이 두 마디가 아니었을까? 이전에도 스님들의 장례에서 꽃가마와 수백 개의 만장 행렬을 목격했던 터여서 법정스님의 유언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법정스님의 법구는 서울 김상사에서 대나무 평상에 모셔져 한 장의 가사에 덮힌 채 출가 본사인 송광사로 옮겨졌다.

하찮은 사람도 그 전생이 어찌했던 운명 하면 땅 속에 들어갈 때까지 호사를 누리던 것이 속세의 방식이다. 하지만, 대나무 평상에 실려 참나무 불길 속으로 홀연히 떠난 법정스님의 마지막 길은 그 자체가 인간 욕심의 허망함에 경종을 울리는 큰 '설법'이었다.

사실 법정스님의 마지막 모습은 하루 이틀에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 스님은 자신의 대표적인 산문집 '무소유'에 실

은 '미리 쓰는 유서'라는 글에서 최후의 길을 예고했다. 스님은 산문집에서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 술 더 떠 거창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것은 의식이 만약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다.

또 스님은 남몰래 하는 기부의 전형을 보여준 따뜻한 사람이었다. 빼어난 수필가로서 당대에 필명을 날렸던 스님은 책의 인세로 궁핍한 학생과 가난한 이들이 아무도 모르게도 읽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스님은 조그만 재물로 남을 돕고 나서 칭송받는 일을 즐기는 친박함과도 차원이 전혀 달랐다. 자신에게는 엄격했지만 어려운 이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손길을 내밀었다. 스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스님의 가르침이 담긴 크나큰 탑이 세워졌다. /박치영 사회1부장 unipark@kwangju.co.kr

마음의 탑



기고

안홍균



지금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전략 목표로 삼고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녹색공간 확충운동을 실천해나가고 있는 점은 크게 환영할 일이고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분야인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한국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필자로서는 지난 2월 초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한

생겨나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앞서 말한 간접효과를 거둘 수 있는 미래형 녹색성장 박람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 순천지역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축소나 연기 논란은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심지어 지역국회의원까지 "공인된 국제박람회도 아니고 국제원예생산자 협회가 박람회 가입단체도 아닌 만큼

순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힘 모아야

'제1회 전국 생생도시(ECO-RICH)' 평가에서 순천시가 종합 1위에 선정되는 것에 주목했다.

그동안 순천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세계 최고의 연안습지 순천만을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해왔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의 더 높은 브랜드 창출과 경제적, 정신적 풍요를 가져다 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ECO-RICH로서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는 단순히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가 절대적 가치를 두는 시대를 벗어나, 좀 더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 즉 삶의 질에 가치를 두는 시대이다. 특히, 전문가들에 의하면 녹색 정원은 사람들에게 심미적 안정감을 주고 지역의 범죄 건수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리적 안정감은 좁게는 정신질환자의 정신치료, 범죄자의 정신감화 및 어린이의 정서 교육 등에 효과가 있고, 넓게는 스트레스 조절을 통한 정서적 안정, 위기극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원박람회는 1조 3천여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천 7백여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만 1천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개최를 연기할 수도 있질 않느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AIPH는 62년전 유럽 원예단체들이 모여 모임을 결속하고 국제원예산업 발전에 많은 부분에서 공헌하고 있으며 BIE와도 업무 공유를 하는 등 관련 단체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1998년에 가입하여 연례로 국제꽃박람회 공인 등 그동안 AIPH에서 승인한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사례는 매우 많다.

더 이상 AIPH를 폄하하거나 정원박람회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시도를 삼가해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이는 순천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단합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은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험대에 섰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정원박람회를 도입한 주체로서 반드시 성공적 박람회를 기록을 남겨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정원박람회가 될 것인가에 순천의 모든 주체가 역할을 모았으면 한다.

<AIPH 한국위원회 대표>

NGO 칼럼

이천영



출입국의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09년 3월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16세 미만 불법체류 아동은 1만7000여 명. 이 가운데 지난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이주노동자 자녀는 모두 1천402명(초등 981명, 중학교 314명, 고교 107명)뿐이다. 불법체류 노동자 자녀 대부분이 정규교육에서 방치된 셈이다. 또 국제결혼을 통해 입양된 이민여성 자녀 중 대부분이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길에 방치돼

한국 다문화사회의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날 학교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사례를 보면, 엄마의 재혼으로 인해 초중고 과정을 본국에서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입국한 학생의 경우는 수학능력 차이와 한국어 구사능력이 전혀 없어 한국학교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 또 한국인 새 아빠의 입양자녀에 대한 수용 자세 문제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

새날 학교 이대로 둘 것인가?

있다. 일부 이주아동은 새날 학교, 동골인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지만 정규학교가 아닌 미인가 대안학교 개념인 학교시설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정규 초등학교 10곳 가운데 4곳 정도는 이주아동 입학에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이주아동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학교교육이 가능하며, 이주아동의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대한민국도 여서 빨리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이주아동교육문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주아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10~20년 내에 한국은 LA 폭동과 유사한 사회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미래사회의 사회적 혼란을 미리 막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가 바로 '새날 학교'다. 새날 학교는 국제미아가 되어버린 중도 입국자녀의 보금자리이자 안식처다. 지금은 100명 남짓 모집해 교육하는 다문화 학교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직면하게 될 사회적 현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이 되고 있다. 또 새날 학교를 통해

능한 경우, 언어와 문화적 충격으로 정체성 혼란이 가중되고, 특이한 외모를 가진 학생을 '왕따' 시키는 학생들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전학온 경우 등이다. 이런 학생들을 돌보는 새날 학교는 현재 미인가 상태다. 정규학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학생이 검정고시에 합격하기는 어렵다.

학생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2010년 3월 현재 학생 수는 16개국에 84명이며, 2010년 말쯤이면 200여명의 학생으로 수가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좋은 교육을 받아 아무리 훌륭한 품성과 재능을 가졌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구가 되기에는 힘들다. 결국, 한국사회가 떠 안아야 할 사회적 부담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는 새날 학교가 정규학력 인정학교가 되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교과부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새날 학교 인가요건을 완화했지만, 광주시교육청 나름대로 관련규정을 마련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날 학교 교장>

부모가 하는 결혼식 주례 '신선한 충격'

며칠 전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예식장에 갔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날 지인의 결혼식장에서는 주례가 놀라게도 결혼 당사자인 신랑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주례사를 듣는 모든 축하객들은 박수를 몇번이나 쳤고 주례사 구절구절마다 가슴깊이 새겨야 할 주옥같은 당부들이 담겨져 있어서 새출발을 하는 부부에게도 영원히 남을 주례사였을 것 같았다.

일생에 가장 소중한 행사가 결혼식에 친아버지가 주례를 해주는 것 만큼 뜻깊고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주례를 하신다는 사회자의 설명에 하객들이 모두 응성거리며 웃기도 하고 의아해 하기도 했지만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것 같은 주례사는 들으면 들을수록 참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웠다.

저평인사들의 주례사를 보면 진부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혼자가 주례를 하니 꼭 필요하고 소중한 몇 마디만 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자식들에게 인생의 좌표를 제시해 너무나 유익하다. 앞으로 결혼을 앞 둔 가정에서 참고해 봤으면 좋겠다. ▲김상욱·목포시 대방동

취직하기 위해 성형까지...외모 지상주의 세태 '쓰쓸'

요즘은 '취업 성형'이라는 말이 불거져 나오면서 성형에 대한 시각은 현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인 것으로 바뀌어 되었다. 내 주위에 서서도 취업을 하기 위해 성형의 과를 다녀온 사람들을 여럿 보았다.

그들의 논리로, 면접이란 결국 면접관들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인데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외모로부터 평가될 수 있는 첫인상이 좋아야 한다고 한다. 일단 첫인상이 좋아 면접관들의 눈에 띄게 되면 그 면접은 70%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

름없다고 한다.

우리는 왜 사회에서 외모를 평가받아야 하는 것일까. 기업은 그들의 발전에 도움을 줄 인재를 선발하고 싶다면, 외모평가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면접이라는 단발적 만남이 아니라, 일부 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합숙이나 산행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절한 인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우리 사회를 구제해주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박종식·목포시 동명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1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대우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사회 1부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